

「죽은 사람들」: 게이브리얼의 정치학

김 상 효

I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종결부인 「죽은 사람들」("The Dead")은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었으며, 특히 그 주인공 게이브리얼 콘로이(Gabriel Conroy)에 대한 시각은 극단적인 양상으로 제시되었다. 그를 조이스(Joyce)의 민족주의자 혹은 속물주의자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최근에 와서 부각되었지만, 지금까지 게이브리얼을 조이스의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보는 견해는 「죽은 사람들」의 “특정하고 배타적인 독서방법”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몇 조이스 비평가들은 이러한 견해에 다소 회의적 반응을 피력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게이브리얼을 조이스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독서방법임을 인정하면서, 그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의도는 이 작품을 조이스스티븐(Stephen)이 『초상』(*A Portrait*)에서 주장하는 “전체성, 조화, 광휘”라는 모더니즘의 심미적 관점뿐만 아니라 『율리시즈』(*Ulysses*)에서 전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이라는 두 가지 방법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게이브리얼이 자아와 주체성을 상실한 사대주의자 혹은 속물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게이브리얼이 서부로 여행할 것을 결심함으로써 자아인식에 이르는 시점 이전의 상황을 전제한다. 둘째, 게이브리얼이 자신의 사대주의적 관점을 해체함으로써 조이스의 민족주의, 즉 해체주의적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게이브리엘의 정치학 혹은 조이스의 정치학에 대한 검토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조이스가 제시한 조국에 대한 비평과 그 비평의 궁극적 목적을 밝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II

‘조이스의 민족주의’는 지방성에서 탈피하여 범세계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써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과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원래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영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을 그 근본 기치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운동과 그 일환이었던 문예부흥운동, 게일어 부활운동, 전통체육경기 부활운동 등이 지방성과 편협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더블린 사람들』을 창작함으로써 조국의 동포들이 자신들의 마비된 모습을 “잘 닦아 놓은 거울”에 비춰보고 재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다.

『더블린 사람들』의 중심주제는 “마비”이며, 그 주제는 이 작품의 15개의 단편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 이후의 작품 『초상』에서도 이러한 주제는 끊임없이 제시되지만 이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조이스의 민족주의적 열망이다. 「죽은 사람들」은 『더블린 사람들』과 『초상』의 연결부로서 ‘마비’와 자아인식의 주제와 ‘조이스의 민족주의적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어왔다. 작품의 주인공 게이브리엘은 결국 조이스식의 민족주의자가 되긴 하지만, 문제는 그가 자아를 인식하기 이전의 상황인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은 「죽은 사람들」의 주인공 게이브리엘을 상반된 측면, 즉 그를 아일랜드의 마비된 인물들 중의 한 사람으로 다루거나 혹은 조이스의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인물로 다루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들이 이 작품의 주인공을 조이스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작품의 마비와 자아인식의 주제, 인물의 이기주의적 성격, 게이브리엘의 정치학, 조이스의 정치학, 상징과 이미지, 작품의 정황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데이비드 데이시즈(David Daiches)와 월턴 릿츠(A. Walton Litz)는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게 분석했다. 그러나 이 두 비평가들이 자신들의

논제를 전개하면서 조이스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이것은 아마도 이 작품을 긍정적인 관점 즉, 조이스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읽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관점, 즉 주인공의 마비된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읽는다면, 그 주제의 상충된 측면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빈센트 첵(Vincent Cheng)과 얼 잉거솔(Earl Ingersoll)이 이 작품의 상충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들의 비평을 전제한다면, 게이브리엘의 마비상과 민족관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작품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경은 게이브리엘의 두 이모인 케이트(Kate)와 줄리아(Julia)의 집에서 진행되는 연회장면이다. 이 연회는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온 “죽음의 무도회”(Tindall 43)이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마비된 인물들이다. 게이브리엘은 이 연회에 참석한 마비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초월적인 중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이브리엘이 정신적으로 “죽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은 사람들의 일원”(Walzl 424)이고, 더욱이 “마비의 증중에 걸린 사람”(Benstock 154)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주인공의 이기주의적 성격은 마비의 한 형태이다. 게이브리엘은 자기중심주의의 세계 속에 갇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인식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폐쇄성을 인식하기 이전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이기주의적 관점”(Daiches 33)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실례는 연설과 관련된 그의 의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아이버즈(Ivors)로부터 친영파라는 말을 들은 후 그녀에게서 받은 수모를 양갓음하기 위해서 자신이 준비한 연설내용에 그녀를 비난하는 내용을 첨가하기로 하면서 매우 흡족해 한다.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공격을 물리치고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아일랜드의 환대, 유머, 인간성”(190)과 같은 구세대의 미덕을 찬양하고, 그녀와는 달리 이 세대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감상주의에 빠져든다. 연설의 내용으로 보아, 일견 그가 아일랜드의 전통을 찬양함과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조사”(funeral oration, Tindall 43)에 불과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녀를 비난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두 이모를 외양으로는 찬양하면서도 내심 “단지 무식한 노인네들”(190)이라고 무시하는 데서 그 절정에 달한다. 그는 아이버즈를 비난하기 위해 “위선”(Cheng 33)을

가장하여 이모들을 무식한 노파로 주변화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그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내와 대화하면서 다정하게 말하지만, 이것은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 될 뿐이다. 그의 의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는 구구절절 냉소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기주의의 방벽뒤에 자신을 숨기려 한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프레디 맬린즈(Freddy Malins)는 “아주 괜찮은 녀석”이 되기도 하고 “멍청한 녀석”(214)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작은 세계”(Daiches 34)를 형성할 뿐이다. 그는 또한 릴리(Lily)와 아내, 아이버즈, 맬린즈 등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 작품의 주제를 ‘마비’와 ‘자아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마비의 주제는 게이브리엘이 자기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이며, 가부장중심적이라는 사실을 포괄한다. 그는 마비되어 있으며, 그가 이러한 마비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곧 자아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모든 면에서 마비된 인물이지만 조국관에 있어서만 유독 조이스의 민족주의자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게이브리엘이 문화의 배설장이며, 민족영웅을 배신한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암돼지”(P 203)로 비유되는 조국을 떠나고, 아일랜드인들의 허울좋은 문예부흥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비판함으로써,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는 진정한 조이스의 민족주의자라면, 그가 아내와 자식들과 이모들에게 가부장으로 존재하고, 양성관계에 있어서 식민주의적이며, 아내와 릴리와 아이버즈와 같은 여성들에게 남성중심적 태도를 지닐 수 있을까? 또, 조이스가 게이브리엘을 자신이 원하는 민족주의자로 제시하고자 했다면 그의 성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을까? 한 인물 속에 조이스의 민족주의자로서의 긍정적인 측면과 인간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너무나 상충된 주제의 설정이다. 아무튼 이러한 사실을 수용한다면, 게이브리엘은 조이스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는 마비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는 마비된 인물이 될 것이다.

이 작품의 주제와 인물의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조국과 타자에 대한 게이브리엘의 태도는 조이스의 민족주의보다는 속물주의나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의 모든 요소들을 부정하고 대륙을 지향했던 게이브리엘은 지나치게 대륙 지향적인 자신의 성격과 지나치게 민족성을 강조하는 아이버즈의 태도를 상호 보완하여 해체주의적 상황을 지향하게 된다.

그는 처음에는 사대주의적 태도를 보이지만, 결국 좀더 차원 높은 민족주의적 태도를 지닌 인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게이브리엘의 제국주의 정치학은 본고의 논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빈센트 첵(Vincent Cheng)은 일차적으로 조이스를 “정치와 무관한 문체의 혁신자”로 보는 모더니즘의 정전화 과정에서 벗어나, 조이스의 작품이 지닌 정치성과 이데올로기성을 강조했고, 게이브리엘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아일랜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가설을 통해 그를 “속물주의자”로 봄으로써 그에 대한 여러 비평가들의 민족주의적 견해를 일축했다. 첵이 「죽은 사람들」을 논의함에 있어 주요 가설로 설정한 것은 “제국주의와 성의 식민지화”이다. 조이스는 군국주의와 성의 정치학의 상호관계에 대한 페레로(Guglielmo Ferrero)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것은 군국주의와 호전적인 남성우월주의의 남성적 전통은 여성이 욕망 할지도 모르는 고상함과 용기(여성에 대한 헌신)가 아니라 남성의 난폭성이 지배적인 양성관계로 귀착된다는 견해이다. 제국주의와 성의 식민지화는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서로 결합된 역학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들」은 많은 형태의 정치적 관계와 힘의 관계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성을 암시한다. 이것은 성의 정치학과 국가간의 정치학, 그리고 그들의 상호관계성을 지적하는 말이다. 게이브리엘은 성의 정치학에서 제국주의적 경향을 보이듯이 국가와 문화의 정치학에서도 제국주의적 양상을 드러내며, 이러한 제국주의는 영국식민압제자들과 공모함으로써 유지된다. 이와 같이 게이브리엘은 자신의 주체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제국주의 국가와 그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가 영토와 경제 문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주체형성의 전망(subject-constituting project)을 함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종속과 의존의 정치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Cheng 26n). 그러므로 결국 그의 가족 정치학, 성의 정치학, 국가상호간의 정치학은 가부장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속물주의 혹은 사대주의로 귀결된다.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게이브리엘의 성의 정치학뿐만 아니라 가족정치학과 문화의 정치학도 국가상호간의 정치학을 근간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게이브리엘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부장중심적이다. 그는 가장으로서 선의의 “가정의 폭군”이며, 영국식민제국의 압제자들과 상징적으로 공모하는 잠재적으로 억압적인 가장의 적절한 표상이다(Cheng 26). 이와 같이 그의 가부장적

정치학은 제국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성관계에 있어서 그는 남성중심적이다. 그의 전망은 동부가 상징하는 제국주의와 남성성의 세계이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구축함으로써, 타자, 특히 여성을 식민지화하며, 그 수단으로써 영국과 유럽대륙의 제국과 그 문화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영국과 유럽대륙 지향성과 문화와 계급의 속물근성에서 기인한다. 이같은 게이브리엘의 태도는 영국제국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자신의 제국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 대영제국주의에 의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민족에게 제국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배자의 삶을 모방하여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피지배자의 원망으로 표출되며, 강자의 규범을 받아들여 약자인 동족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타난다. 게이브리엘은 대륙적이고 영국적인 영향에 의해 규정된 문명화된 문화적 규범에 사족을 쓰지 못하며(Cheng 37-38), 아일랜드성을 상실한 채 제국주의 압제자들의 가치기준을 받아들여 자기 동족에게 제국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지배와 식민지화, 권위와 주변화”(Cheng 26)는 게이브리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개념이다. 이러한 양상은 그가 아내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아내의 건강을 위한다는 구실로, 아내의 여러 행위를 거론하여, 아내를 유아화함으로써, 그녀를 지배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다. 게이브리엘은 릴리가 “케이트와 줄리아는 당신이 오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말에, “분명히 그럴 줄 알았어, 그들은 아내가 치장하는데 3시간씩이나 걸린다는 걸 잊고 있는 모양이야”(174)라고 말한다. 유쾌한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은, “여성의 본질을 유아화하는 것으로써, 대영제국이 그 식민지 국가들을 제국에 의해 적당히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제멋대로 구는 어린이로 취급하는 ‘다정한’ 태도와 유사하다(Cheng 27). 이 비유는 성의 식민지화와 제국주의 지배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게이브리엘과 그의 아내의 관계는 대영제국과 그 식민지 국가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의 남성중심주의는 제국주의적 양상을 지니며, 그의 제국주의적 태도는 대영제국과 유럽의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과 결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아내를 예술로써 본질화하여 객관화하고 주변화함으로써 그녀를 지배하려 하고, 과거 아내와 가졌던 비밀스런 기억의 편린들을 회상하며 작금 자신의 욕정(brutal lust)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내의 과거 사랑에 대해 분노하고, 육체적 지배와 폭력을 가함으로써 아내에게 가부장적 지배권을 행사한다.

서구의 가부장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그는 여성을 예술과 상징으로 인식하며,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 미학적으로 객관화하고 있는 것이다(Cheng 36).

이 작품에서 그레타(Gretta)가 듣고 있는 노래 「오림의 처녀」("The Lass of Aughrim")는 가부장적 귀족이 시골 여성을 "지배, 학대, 강탈"하는 이야기를 노래한다. 여러 판본이 있지만, 조이스가 선택한 이야기는 그레고리 경(Lord Gregory)이 처녀를 성폭행하고 그녀가 아이를 갖게되자 그녀를 쫓아버리며, 그녀는 아이를 출산한 후 비를 맞으며 싸늘하게 죽어 가는 어린아이를 안고서 성안으로 들쳐보내 줄 것을 애타게 소원하지만, 결국 거절당하여 버림받는다. 이 이야기이다. 책은 게이브리엘을 그레고리 경으로, 그레타를 현대의 오림의 처녀로 비유하는데, 이 비유에서 각각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제국주의 압제자와 식민주의 희생자"(39)를 나타내낸다. 이와 같이 게이브리엘은 가족과 성과 문화의 정치학에서 제국주의적 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두 활랑」("Two Gallants")에서도 조이스는 "잔인한 성적 정복은 영국의 잔인한 아일랜드 지배와 유사함을 지적하고 있는데(Cheng 30-31 n), 이 경우도 역시 제국주의 정치학의 일면이다. 사랑의 잔학함과 정치학은 상호 관련되기 때문이다(Manganiello 52, Cheng 31, n).

게이브리엘은 여성인 릴리를 대할 때도 남성중심적 태도를 취한다. 게이브리엘이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너그러운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그녀는 그의 "기분좋은 대화의 주제"(Daiches 33)가 될 뿐이다. 그는 그녀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지닌 여성"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Cheng 29). 이러한 그의 독선적인 태도는 남성중심적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녀의 반박으로 다소 상처를 입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그의 남성중심적 전통이 다소 허물어졌을 때, 그는 또 다른 제국주의 즉, 상대적 부와 힘의 지배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는 아이버즈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게이브리엘은 아이버즈에 의해 자신의 이기주의적 제국주의가 치명상을 입은 후에도, 그녀가 파티에서 떠나려 하자 자신의 남성적 전통을 내세워 또 다른 지배권을 행사하려 한다. 이것은 역시 그가 남성적 전통에 기초하여 여성을 "유아화"하는 경우이다. 그는 릴리와 아이버즈로부터 자존심을 훼손당한 후 자기중심주의가 안전하게 발휘될 수 있는 적당한 분위기가 조성될 때, 식탁의 상석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인물인 것이다.

결국 그는 동족, 특히 가족 구성원과 여성들에게 제국주의적 태도를 취하며, 이를 유지보존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과 동맹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속성은 제국주의와 속물근성, 그리고 사대주의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게이브리엘은 자신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대륙의 제국과 그 문화에 의존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의 속물근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국가간의 정치학의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사대주의로 귀착된다. 그의 문화적 속물근성은 그가 고무땃신을 선호한다든지, 유럽대륙의 여러 제국주의 국가로 자전거 여행을 한다든지, 특히 그가 자신의 연설 내용에 삽입한 브라우닝의 시구를 연회참석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타난다. 그는 늙은 노인네들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치부하며, 식사를 “천민들이 소위 배 채우기라고 부르는 것”(195)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타자를 주변화하려는 권위적 경향”으로 “무의식적 문화적 속물근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Cheng 33, 34). 버나드 벤스탁(Bernard Benstock)이 게이브리엘의 연설 내용과 관련하여 지적하듯, 그는 자신을 자유 분방하고 진보적인 사상의 옹호자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상처받은 자아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배반하고 있다 (158). 게이브리엘과 아이버즈가 언쟁을 벌였던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자신이 국제적이고 세계주의적 미래를 지향함에 있어 진보적이라 생각한다. 그는 과거를 찬양하고 새로운 세대를 비난하면서도 그의 지성에 걸맞게 그 위험성을 지적하지만, 그는 작품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과거에 집착할 뿐이다. 이러한 허구성을 전제할 때, 그의 민족과 언어관은 속물근성에서 연유한 것이며, 그의 유럽여행은 “일시적 도피”와 일시적 기분전환을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게이브리엘은 멀리건(Mulligan)과 같은 변절자도 아니고, 스티븐(Stephen)과 같은 조이스의 민족주의자도 아닌, 자존심 강한 속물주의자인 것이다.

게이브리엘의 사유형태는 서구 형이상학의 관념체계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양상을 모두 보여준다. 그 하나는 지배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피지배적 성격이다. 전자는 그의 자기중심주의, 지적·교양적 우월주의, 가부장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을 통해서, 후자는 문화적 속물주의와 정치적 사대주의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의 지배적 성격은 제국주의로 표면화되고, 이는 피지배적 속물근성을 통해 유지된다. 사대주의자는 뚜렷한 관념을 지니지 못하고 세력이 강

한 대상에 의지해서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처럼 게이브리엘은 아일랜드의 문화가 아니라 유럽대륙의 문화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사대주의적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 하겠다.

게이브리엘의 가족전통을 추적해 보는 것은 그의 성격을 유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공허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게이브리엘이 유럽을 여행하곤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조이스의 민족주의자라고 가정한다면, 그의 어머니가 게이브리엘로 하여금 조이스의 민족주의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그의 외조부 패트릭 모칸(Patrick Morkan)은 방앗간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했고, 그것을 수단으로 “높은 양반”(295)이 되어 대영제국의 경제권에 흡수되려는 허식을 가졌고, 높은 양반들처럼 공원에서 거행되는 영국군의 사열식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당시 제국의 경제적 식민주의로 인한 아일랜드의 피폐상을 전제할 때 그가 방앗간과 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영국 제국주의자들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외조부의 말이 빌리왕의 동상 주변을 댄다는 것은 대영제국에 굴종하거나 추종하는 외조부와 아일랜드사람들의 마비 증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압제자들의 가치를 수용하는 것은 외조부의 특성이었고, 이러한 특성은 게이브리엘의 어머니에게 전도되었으며, 결국 게이브리엘은 어머니의 이러한 특성을 이어받았던 것이다(cf. Cheng 35).

영국 지배계급의 후손이었던 앵글로 아이리시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태생적으로 그들의 선조였던 영국의 문화와 도시문화에 쉽게 경도되는 경향을 보였다. 1871년 당시 남부의 26개 주의 10.87퍼센트가 프로테스탄트였고 북부의 6개 주에서는 66퍼센트가 프로테스탄트였다. 특히 북부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독립된 아일랜드에 소속되기를 거부했으며 전통적으로 대영제국의 통합된 국가로 남아 있기를 원했다(Hodgart 15). 반면 당시의 아일랜드 토착 카톨릭교도들은 종교적으로 앵글로 아이리시 프로테스탄트들과 반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그들의 물질주의적 경향을 암암리에 모방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신흥 중산 카톨릭 교도들은 아일랜드 농민과 전통과 게일어를 싫어했고 수치와 퇴보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아일랜드 귀족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국군의 장교에 임관될 궁리를 하였고 부재지주의 전통에 따라 영국으로 진출하려 했던 사례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P 237-38, Gifford 275). 이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 아일랜드의 전통을 수치스

럽게 여기고 영국적 도시문화에 동화되고 심지어 영국으로 진출하려 한 사실들은 그들의 속물근성에 기인한 것이다. 게이브리얼의 태도는 그의 성격과 작품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게이브리얼의 속물근성은 종교와 관련된 그의 가족전통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두 지배자는 대영제국과 로마카톨릭교회(U 17)이며, 하물며 “영국이 아니라 로마가 아일랜드를 지배하고 있다”(SH 57)고 말하면서 종교의 제국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1845-48년의 대기근이후 경제의 파멸상과 종교의 부패상으로 미루어 보아 성직자가 되는 것은 신분상승과 생계유지의 수단이었다(Hodgart 15).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제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종교문제에 가장 관심이 없는 배금주의자들을 종교생활의 전형”(171)으로 제시하곤 했다. 그러나 게이브리얼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 콘스탄틴을 성직자가 되도록 했다. 콘스탄틴은 어머니의 헌신으로 사제가 되어 이러한 신부의 또 다른 전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그녀가 게이브리얼에게 조이스의 민족주의를 고무시켰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게이브리얼이 학위를 받았던 왕립대학은 영국의(신교의) 학술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그 산하기관의 학사과정을 결정했던 학위수여기관이며, 영국지배자들의 문화적 기준을 강요하는 “영국협력자 기관”(shoneen institution)이었다. “shoneen”은 영국과 앵글로 아이리시(West Briton)계의 관습과 풍습을 모방했던 토착 아일랜드 사람들(Manganiello 24), 혹은 영국에 협력하는 토착 아일랜드인을 지칭한다. 게이브리얼의 어머니는 그로 하여금 이러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도록 했던 것이다. 이처럼 어머니가 게이브리얼에게 유럽여행을 권고하고, 왕립대학에서 학위를 받도록 하고, 또 다른 아들에게 사제가 되도록 한 것은 분명 그녀의 계급속물근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그녀가 게이브리얼이 시골출신인 그레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녀가 가족의 “지식전달의 담체”(擔體, brains carrier, Walzl 432) 역할을 했던 것을 전제할 때, 어머니의 영향하에 있었던 게이브리얼은 영국에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과 앵글로 아이리시계의 관습과 풍습을 모방했던 토착 아일랜드 사람들의 표상으로 제시된 것이다.

아일랜드성이야 말로 게이브리얼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조이스는 자신의 민족주의에서 “더블린의 핵심”(Ellmann 505), “아일랜드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Litz 23), “아일랜드성”(Cheng 31)을 가장 중요하게 인

식했다. 조이스는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티에서 쓴 「성자들과 현인들의 섬 아일랜드」에서 “모든 국가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아를 지니고 있다”(CW 154)고 주장했으며, 책은 조이스의 이 글이 「죽은 사람들」의 배경을 형성하는 문제와 관심을 설명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다고 말하면서 “문화나 국가는 개인의 심리처럼 작용한다”(21)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이스의 민족주의는 아일랜드성이 그 핵심을 이루지만, 게이브리엘에게는 바로 이러한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

아이버즈는 국수주의를 대변하는 인물이지만, 게이브리엘의 개인주의를 공격하는 두 번째 인물이며 그의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는 게이브리엘이 두려워하고, 억제하고, 거부하고, 배반했던 어떤 것 즉, 그의 아일랜드성을 대변하는데, 그것은 권위 있는 자아가 거부하고 싶은, 그레타와 퓨어리와 아일랜드의 서부가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멋대로 굴고, 비현실적이며, 미개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문명화되지 않은, 그리고 식민지화할 수 없는 자아이다. 또한 이러한 그의 아일랜드성은 그의 어머니의 계급속물근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주입된 두려움과 억압인 것처럼 보인다(Cheng 31).

그러므로 아일랜드성을 인식한 조이스에게 아일랜드는 “사랑스럽고 더러운 더블린”이지만, 그렇지 못한 게이브리엘에게 조국은 “더러운 더블린”일 뿐이다. 조이스의 민족주의는 지역주의에서 탈피하여 범세계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일랜드의 본성과 자신의 본성이 그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진정한 아일랜드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대륙지향적인 성격은 속물근성일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일랜드성이야 말로 조이스의 민족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한 잉거솔은 게이브리엘이 여성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남성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허영이며, 그러므로 그의 동부로의 여행은 헛된 여행임을 지적함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게이브리엘로 하여금 유럽으로 여행하도록 권고했던 그의 어머니는 남성다움이 동쪽에서의 여행과 관련되는 가부장적 권력구조 속에 편입되어 있으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열망에 동조하는 인물이다(Ingersoll 48). 가부장적 권력구조에서 가부장만 가족구성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듯이, 게이브리엘의 동쪽에서의 여행은 조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고 있는 허약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그가 자신의 “여성성”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는 충분히 성숙한 한 남성이 될 수 없다. 그는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먼지가 자욱히 쌓인 영국과 유럽문화의 유적지로 여행했었다. 그러나 이런 헛된 여행 속에서 그가 추구하던 “남성다움”은 결론적으로 공허하기만 하다.

Until he recognizes his “femininity” in the vulnerability or powerlessness that he shares with all the living, Gabriel will be less than a man. The “maleness” toward which Gabriel had been aspiring in his false journey eastward the dusty remnants of British and European culture at his mother’s urging is finally hollow. (Ingersoll 49)

게이브리엘이 여성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남성이 될 수 없다. 그에게 애란제도는 여성성에 비유된다. 그가 ‘여성성’, 즉 조국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숙한 남성’, 즉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의 여행은 어머니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고, 게다가 그는 조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유럽대륙을 여행하면서 추구했던 남성다움, 즉 민족주의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성에 대한 인식 없이 강인한 남성이 될 수 없듯이, 아일랜드성에 대한 인식 없이 그는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는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기 위해 먼저 아일랜드성을 이해해야 하며, 그 후 대륙적인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국의 핵심을 이해한 후에 비로소 그는 “권능으로의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Ingersoll 49). 이것이 곧 조이스의 민족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조국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 게이브리엘은 조이스와 같은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이스의 정치적 관점을 검토하는 것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조이스는 영국과 카톨릭교회의 제국주의와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와 문예부흥운동을 거부하면서 그의 초기의 관심사였던 사회주의를 버리고 매우 정치와 무관한 창작활동에 헌신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cf. Deane 168, Manganiello 1). 이것은 많은 비평가들이 조이스를 “초정치적” 태도를 지닌 작가로 다루었으며, 모더니즘의 미학적 관점에서 정전화하였음을 지적하는 말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지의 사실이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조이스의 정치적

관점을 논증했으며, 독자들은 그의 텍스트에서 대영제국과 로마카톨릭교회, 인종과 인간간의 정치학의 문제를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조이스가 어린 시절 창작한 「힐리어 너마져」(“Et Tu, Healy”)로부터 유럽대륙에 기거하는 동안 행한 그의 비평연설문 등에는 시종일관 그의 정치적 견해가 도처에서 번득이고 있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글쓰기를 최고의 정치행위로 본 문학적인 혁명가인 것이다(Fairhall 63).

조이스의 정치학은 탈제국주의와 탈식민주의적인 것이다. 그는 군국주의와 그것이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거부했으며(Manganiello 52), 특히 물질주의 문명을 기반으로 한 영국을 “야만적인 제국”(U 485)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야만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일랜드를 수탈했던 제국의 작태를 『초상』과 『율리시즈』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게이브리엘이 가정과 성과 문화의 정치학에서 제국주의적이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학은 위의 두 작품에 나타난 대영제국의 제국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초상』과 『율리시즈』에서 볼 수 있는 “반반유대주의”와 같은 조이스의 정치학은 해체주의적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이스의 국가간의 혹은 민족간의 정치학은, 그가 남녀관계에서 양성론적 태도를 취했듯이, 역시 해체주의적이다. 그러나 게이브리엘의 제국주의 정치학은 조이스의 정치학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게이브리엘은 제국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아일랜드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대륙지향적 경향을 보인다. 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닌 게이브리엘이 조이스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의미를 지닌다. 조이스와 스티븐은 탈제국주의, 탈식민주의, 해체주의를 지향하고, 게이브리엘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구조주의, 서구형이상학적 사고를 견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은 여성과 유대인을 착취하고 경멸함으로써 제국주의적 양상을 띠었다. 조이스는 이러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게이브리엘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국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게이브리엘의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제국주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여성에 대한 태도와 상통하는 것임으로 그의 태도는 조이스가 경멸했던 그러한 태도인 것이다.

아이버즈는 게이브리엘을 친영파라고 말하지만, 게이브리엘은 문학이란 정치 초월하는 것이며, 서평을 쓰는 것은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게이브리엘의 말처럼 친영 신문에 서평을 기고한다고 해서 친영파가 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이스의 글쓰기가 영국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무수한 정치적 담론들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조이스가 어떻게 자신의 글쓰기에서 정치를 초월할 수 있었을까. 조이스는 문학이 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탈식민주의적 정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이브리엘의 정치관을 수용한다면, 그는 글쓰기에서는 정치적이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는 정치적이고 제국주의적인가? 빈센트 쉐은 게이브리엘이 친영신문에 서평을 기고하는 것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대영제국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이며, 제국주의 압제자들과 내통하고 그들의 협력자가 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31). 단지 조이스의 작품을 정치와 무관한 모더니즘 미학의 관점에서 읽는다면, 게이브리엘이 말한 대로 문학은 정치를 초월할 수 있겠지만, 조이스 작품의 정치성이 드러난 이상 그의 말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게 된다.

애관섬으로 유럽여행을 가자는 아이버즈의 제안에 게이브리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해마다’ 친구들과 자전거 여행을 하며, 대체로 그들의 여행 목적지는 프랑스나 벨기에 혹은 독일이다. 그들이 유럽대륙의 여러 국가를 여행하는 목적은 그 나라의 언어를 접해보고 기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초상』에서 스티븐이 유럽대륙으로 떠나는 목적은 “삶에서 삶을 재창조하고”(P 171), “민족의 창조되지 않은 양심을 버리기”(P 253) 위한 것이다.) 물론 그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접함으로써 한 국가의 문화에 집착하지 않고 대륙의 각 언어들이 지닌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아일랜드인이면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영국과 유럽대륙의 여러 제국주의 국가에 편승하며, 하물며 자기 민족과 민족의 언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그러한 요소들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여행하고자 하는 유럽국가들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이것은 가족과 성과 문화의 정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제국주의적 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정치학은 조이스의 정치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조이스의 정치학은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것 모두를 거부하지만, 게이브리엘의 정치학은 제국주의적이다.

이 작품은 조이스 자신과 더블린사람들에 대한 패러디일 수도 있다.¹⁾ 엘만

1) 게이브리엘은 자신의 연설에서 아일랜드의 환대의 전통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피크는 이것을 이러한 특질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던 조이스 자신에 대한 패러디라고 설명한다(Peake 48-49). 그러나 게이브리엘의 찬사는 그가 아이버즈와의 논쟁에서 받

은 조이스 전기에서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더 파우어(Arthur Power)는 위대한 작가들처럼 국제적인 것을 다름으로써 국제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조이스는 위대한 작가들이 가졌던 민족주의의 강렬성을 강조하면서 “더블린의 핵심”에 이르는 것이 세계의 모든 도시의 핵심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했다(Ellmann 505). 파우어는 국제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조이스식의 민족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조이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조국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이브리엘과 같은 인물이다. 유럽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조이스식의 민족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유럽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더블린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게이브리엘은 파우어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는 어느 예술가에 대한 조롱적 회화의 대상인 것이다.

피크(Peake)는 게이브리엘을, 조이스가 더블린에 머물렀더라면, 그렇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던 조이스의 초상이라고 지적했다(49). 조이스는 유럽으로 가서 생활함으로써 자신이 과거 더블린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아일랜드성을 인식하고 이 작품에서 게이브리엘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패러디한 것 인지도 모른다. 로마와 트리에스테에 체류하면서, 조이스는 더블린에서는 자신이 더블린사람(a Dubliner)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인식했던 것이다(Ellmann 253). 이처럼 게이브리엘은 조이스 자신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를 그러한 인물, 즉 아일랜드성을 상실한 인물에 대한 패러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정치를 초월한다는 게이브리엘의 생각이나 조국에 대한 그의 견해는 분명히 조이스의 민족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은 이와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는 조이스가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에 반대했으며, 유럽대륙으로 망명하여 창작활동을 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친영 신문에서 평을 기고하여 원고료를 받았으며, 문학은 정치를 초월할 수 “없다”는 사실

은 수모를 씻어버리기 위한 공격의 수단이며, 그 찬양의 대상인 두 이모들은 “단지 무식한 노인네들”로 그의 독설의 수단이 될 뿐이다. 또한 그가 찬양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환대는 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하다(Walzl 432). 그러므로 이러한 역설적 내용은 조이스가 자신을 패러디함으로써 아일랜드의 과거 전통을 찬양하려 했다가 보다는 게이브리엘의 자기기만적 행위인 것이다.

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책은 조이스가, 게이브리얼을 창조함에 있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지금까지 반아일랜드 운동의 공범이었다는 죄의식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설명한다(32). 이러한 사실은 그의 편지 내용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조이스는 동생 스타니슬라우스(Stanislaus)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조국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고백했다(Letters 109). 그래서 작가는 게이브리얼을 아일랜드성을 상실한 속물주의자로 설정한 후, 그가 서부로 여행할 것을 결심하는 내용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비판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이스는 유럽적인 특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조이스가 조국을 떠나 유럽대륙을 전전하면서 창작활동을 했지만 끊임없이 조국에 애착을 가졌던 그의 민족주의로 표출된다.

또한 아내와 조국에 대한 게이브리얼의 태도를 조명해 보는 것도 본고의 주제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레타는 퓨어리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해요”(217)라고 말한다. 그레타가 아일랜드에 비유된다면, 퓨어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민족영웅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게이브리얼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만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는 사랑의 표현으로 아내에게 고무땀신을 신게 함으로써 그녀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제국주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기만적 사랑일 뿐이다. 혹시 그에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기기만적인 것이다. 이야기의 표면적 정황은 게이브리얼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까지도 기만적이다(Benstock 154).

그러므로 자아를 인식하기 이전의 게이브리얼의 모습은 「애러비」(“Araby”)에서 각성하기 이전의 소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애러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게이브리얼의 행위는, 돈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말을 팔아버린 아랍(Arab),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내를 영국의 고관에게 팔아버린 조지 노턴(George Chapple Norton),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위해 로맨스를 팔아버린 소년의 경우와 비교된다. 그는 고무땀신을 신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호텔로 가고 있으며, 자신의 제국주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유럽대륙을 여행하는 것이다.

「한조각 구름」(“A Little Cloud”)의 리틀 챌들리(Little Chandler)는 영국과

유럽대륙의 제국주의를 동경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게이브리엘과 유사하다. 게이브리엘은 영국과 유럽대륙을 선망하면서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숙집」(“The Boarding House”)에서 도런(Doran)이 아내가 될 폴리(Polly)의 천한 가문과 무식을 경멸하는 것은 게이브리엘과 그의 어머니의 그레타에 대한 생각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게이브리엘은 자신의 영달과 허울쏠은 자존심을 위해 조국을 등지고, 이모들을 무시하고, 타인들을 주변화하며, 성적 욕망을 위해 아내의 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를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여타 행위는 “허영”(33)이며, 그의 유럽여행은 “일시적 도피”이고, 속물근성에 따른 “자기기만적 행위”(Benstock 154)일 뿐이다. 그러므로 게이브리엘은 「애러비」의 소년과 마찬가지로 “맹목”과 “자기기만”에 빠져 자신과 “조국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Walzl 438). 그는 소년처럼 자신이 더블린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도 역시 아일랜드성을 몰각함으로써 그들과 별반 다른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소년이나 게이브리엘은 모두 자신들을 배반하고 있으며, 부패한 아일랜드와 마녀(Sybil)를 위해 충성하는 더블린사람들로 존재한다. 그가 고무땃신을 신고, 조국을 거부하고, 왕립대학을 졸업하고, 유럽대륙으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서부로 여행하기를 거부하고, 동부로 여행하며, 친영신문에 서평을 기고하는 것은 모두 그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소년은 자기기만을 인식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고, 게이브리엘은 자신의 속물근성을 인식하고 잃어버린 아일랜드성을 다시 인식할 때 조이스식의 민족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자기기만을 인식한 「애러비」의 소년이며, 예수를 배반했다가 자살한 유대이며, 사랑하는 말을 팔았다가 후회한 아랍(Arab)인 것이다.

게이브리엘의 속물근성과 사대주의적 경향은 여러 상징을 통해 강화된다. 조이스의 주도면밀성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의 상징성은 주제구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고무땃신”(goloshes)²⁾은 대륙문화의 상징인 동시

2) 일부 비평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새련된 유럽문화의 상징이라면, 게이브리엘이 고무땃신을 애용하는 것은 그가 편협한 아일랜드의 지방성에서 탈피하여 유럽의 범세계주의로 도피하는 것의 상징으로 설명함으로써 이를 조이스의 민족주의와 관련짓기도 한다. 즉, 고무땃신은 “문명화된 유럽문화의 상관물로 설명되고 있다. 이것이 제국

에 게이브리엘의 제국주의적 태도의 상관물이며, 또한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유럽대륙의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편익과 안락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던가 하는 것을 암시한다. 고무땃신과 같은 “매우 세련되고 문명화된 유럽문화”는 사실 식민지 원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며,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착취에 의해 이루어졌다. 『올리시즈』에서 볼 수 있듯이, 제국주의 국가인 벨기에인들이 콩고(Congo)자유 주에서 원주민들로부터 고무를 강탈하기 위해 여성들과 소녀들을 겁탈하고 원주민들을 구타했던 실례를 볼 수 있다(U 12. 1542-47). 이와 같이 고무땃신을 신는 것은 “매우 문명화된 유럽의 지배문화”에 대한 상관물이지만, 유럽대륙의 문화적 우월성과 세련미는 그들의 식민지 국가를 착취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게이브리엘은 유럽대륙의 제국주의 국가에 의존하여 그들의 제국주의적 경향을 답습하고, 이를 이용해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동족에게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제국주의적 인물이다. 그는 고무땃신이라는 사소한 물건울 “그들의 매우 세련되고 문명화된 유럽문화”(Cheng 29)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심각한 “문화적 속물근성”(cultural snobbery)³⁾을 드러낸다.

아이버즈가 자신을 친영파라고 비난하는 말을 들은 후에, 게이브리엘은 집 밖에 쌓인 눈 속으로 도피하고 싶은 감정을 두 번이나 느낀다. 두 번의 경우 모두 그의 마음은 피닉스 공원(Phoenix Park)의 눈 위에 우뚝 서있는 웰링턴(Wellington, 1769-1852) 장군의 기념탑 주변을 맴돈다. 그가 도피처로 선택한 장소가 아일랜드를 지배했던 영국 장군의 기념탑이라는 것은 그의 사대주의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웰링턴 장군은 아일랜드에 대해 완고한 보수주의적 태도를 대변했던 인물이며(Gifford 118), 그 기념탑은 대영제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체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Cheng 33). 이 동상을 세운 것은 아일랜드의 그의 추종자들이었으며, 게이브리엘은 지금 그의 추종자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동상이 “남성의 상징”(Benstock 156)이라면, 그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것이 대영제국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면,

주의의 상징이라면, 그의 제국주의를, 이것이 생명의 상징인 물을 차단하는 것의 의미라면, 그의 생중사를 의미할 것이다.

- 3) Cheng, p. 33. 그는 게이브리엘의 여러 행위가 문화적 속물근성과 관련된다고 설명한다: “This hypocrisy (of Gabriel’s speech) reveals a level of cultural snobbery already hinted at in his preference for things continental, such as goloshes and cycling in France or Belgium.” (33)

그는 제국주의를 추종하고 있는 것이다.

게이브리엘은 외조부 패트릭 모컨(Patrick Morkan)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딸 조니(Johnny)가 빌리왕(King Billy, 1650-1702)의 동상 주변을 맴돌았던 이야기를 하며 흥내를 낸다. 빌리왕은 윌리엄 3세로서, 1690년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군을 지휘하여 (프랑스와 아일랜드 카톨릭의 지원을 받은 제임스 2세를 격파한) 보인(Boyne)과 오림(Aughrim)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아일랜드 지배의 기반을 굳혔던 아일랜드의 정복자요, 아일랜드 카톨릭교도들의 박해자이며, 아일랜드의 종교뿐만 아니라 상업까지도 제약하는 엄격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영국왕으로서, “아일랜드인들이 증오했던 영국지배의 상징”이다 (Cheng 35). 게이브리엘은 제국주의와 속물근성을 상징하는 고무땀신을 신고 조니의 흥내를 내며 현관을 빙빙 돌면서 대영제국에 대한 추종과 통합이라는 아일랜드의 순환적 마비의 징후를 무의식적으로 재각인하고 있는 것이다 (Cheng 36). 그러므로 이 상황은 “마비의 주제에 대한 패러디”로 의도된 것이다 (Benstock 153). 그는, 비록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더블린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마비의 순환적인 일상생활을 상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Walzel 431).

이 작품에서 눈의 상징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처음에는 고립과 온화한 인간성의 결여를 상징하고, 중반은 위안과 망각이라는 도피의 상징이며,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인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먼저 그가 자기중심주의, 제국주의, 속물주의, 사대주의적 사고를 지님으로써 타인들과 고립되고, 비난을 받은 후 눈 속으로 도피하여 자신을 위안하고 자신의 마비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는 눈 속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의 이러한 사고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틴달이 “조이스에게는 우연한 것은 결코 없다”(45)고 했듯이, 이 작품에서 사용된 이미지도 본고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다. 먼저 빛과 어둠의 이미지는 게이브리엘과 그의 아내 그레타의 성격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대체로 게이브리엘은 어둠과, 그레타는 빛과 관련된다. 그는 “어떤 불빛”도 원치 않으며, 촛불조차도 거절하고, 단지 “거리의 가로등에서 비치는 어둡침침한 불빛” 속으로 은거하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불빛조차도 등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레타는 “한줄기 빛을 따라”(213) 남편에게로 가며, 또한 그로부터 시선을 돌려 “불빛을 따라” 창문 쪽을 바라본다.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인 것처럼,

그레타는 생명과 관련되고 게이브리얼은 죽음과 관련된다. 고무땀신 또한 이러한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게이브리얼은 고무땀신 신기를 좋아하고, 그레타는 그가 간곡히 부탁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다. 눈은 물의 한 형태이며, 물은 생명을 의미한다. 게이브리얼과 같이, 고무땀신을 신고 눈을 거부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레타와 같이, 고무땀신을 신지 않고 눈을 수용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다(Tindall 47). 게이브리얼이 조이스의 민족주의와 관련된다면, 그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제국주의와 죽음의 상징인 고무땀신을 벗어 내던져버려야 할 것이다. 분명히 조이스의 민족주의는 “빛과 물”, 즉 진정한 삶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어둠”과 “물의 차단”은 조이스가 혐오했던 편협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아일랜드의 마비상황을 의미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이브리얼은 부부관계, 남녀관계, 가족관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제국주의적, 속물주의적, 사대주의적 태도를 지닌 마비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III

게이브리얼은 가족과 인간관계, 문화적, 정치적 상황 등에서 제국주의적, 속물주의적, 사대주의적 관념을 지니고 있다. 원래 그는 “우스꽝스런 인물, 신경질적인 선의의 감상주의자, 애처롭고 바보같은 인물”(216-17)이었다. 그러나 그는 외적 및 내적 요인에 의해 점차 변화된다. 이러한 양상은 게이브리얼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제국주의적 태도를 해체하는 과정 속에 함축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야기된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편협성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박애와 사랑을 인식하게 된다.

릴리와 아이버즈에 의해 그의 이기주의가 조금씩 와해되었듯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도 빌리왕의 동상(King Billy's white horse)이 상징하는 제국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민족의 지도자였던 오카넬(O'Connell, “white man” 211)의 동상을 봄으로써 그는 민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⁴⁾ 그래서

4) 벤스탁은 돌조각상으로 굳어버렸고 눈으로 덮여 있는 오카넬의 동상을 마비의 주제

결국 그는 아내의 사랑을 인식하고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서부로 여행할 것을 결심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사랑은 물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인식함으로써 “그의 정체성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Walzl 429).

그는 “이제 서부로 여행할 때가 왔다”(220)고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자아인식, 여성성의 인식, 타자성의 인식, 죽음의 인식, 아일랜드성의 인식, 아일랜드의 현실인식을 의미할 것이다. 데이시즈는 아이버즈와 그레타가 언급한 골웨이는 게이브리엘이 저녁 내내 자신을 단절시켰던 “다른 세계의 상징”이라고 설명한다(35). 그러나 그곳은 사실 동부와는 대조적으로 “새롭고 활기찬” 곳이기도 한다(Walzl 433). 그가 스스로 자신을 단절시켰던 서부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이 지방은 원주민들이 아직도 게일어를 사용하며, 아일랜드의 신화와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 아일랜드적인 삶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Gifford 117). 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서부로 여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일랜드성의 인식이다. 그러나 1840년대의 대기근으로 피폐해진 이곳은 “서부로 가면은 죽는다”는 말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역이기도 하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서부로 여행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아일랜드의 현실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의식 속의 서부는 죽음과 같은 아일랜드적인 삶을 상징하고, 그가 서부로 여행을 거부했던 것은 죽은 자들과 아일랜드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가 서부로 여행하는 것은 그 자신을 포함한 아일랜드의 마비상황의 인식을 의미한다. 게이브리엘이 결심한 서부로의 여행은 자신이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죽음과 아일랜드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일랜드 신화에서 서부로의 여행은 “축복 받은 자들이거나 죽은 자들의 섬”(Peake 51)으로의 여행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결심은 삶과 죽음의 인식이다. 또한, 톨달의 설명처럼, “전통적으로 서부로의 여행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 곳은 퓨어리가 그레타를 사랑하다 죽은, 게이브리엘이 경험하지 못했던 열정적인 생이 있었던 곳으로, 자신의 참모습을

에 대한 패러디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153). 이렇게 가정한다면, 게이브리엘은 여전히 마비의 중심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 5)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게일어를 사용하고 퇴보와 죽음의 상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이곳은 조이스의 범세계주의적 민족주의적 개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향도 있다.

발견한 게이브리엘이 서부로 여행할 것을 결심한 것은 현실과의 만남을 의미하며, 결국 삶과 죽음에 직면함을 상징한다(46). 그곳은 그레타와 플러리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므로 그의 결심은 아내에 대한 새로운 사랑의 인식, 타자성의 인식, 참다운 삶의 인식, 자아의 인식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의 서쪽으로의 여행은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이제 그는 그레타의 개체와 주체를 인정하고, 차이의 장벽을 허물고, 관용과 동질성을 인식하고, “대영제국의 규범에 의해 암시되는 남성적 기반”(Cheng 41)을 허물고, 타자를 주체로 수용한다. 그는 자아에 적대적이었던 모든 요소들과 완전한 단일감과 일체감을 느끼며(Daiches 36), 세상과의 새로운 동일의식과 “인간성의 참된 친교”(Litz 58)를 인식한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희생하고 죽음으로부터 재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게이브리엘이 인식의 단계에 이를 때,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눈은 작품 초반에서 게이브리엘의 폐쇄적 사고와 관련하여 “냉담, 고립, 비정”을 상징하며, 중반에서는 그의 자아인식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방, 도피, 알 수 없는 위안”을 상징한다(Litz 56).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눈은 주인공의 자아각성, 즉 “자기중심주의의 범주를 파괴하는 것의 상징이다(Daiches 36). 서부와 눈은 게이브리엘의 자아가 거부하고 배반하고 흡수되어버렸던 모든 억제했던 요소들을 암시하며, 지배, 권위, 식민지화, 제국제도를 위한 가부장적 제국주의적 요구와는 상반되는, 아일랜드정신과 주변화된 타자의 억압받지 않은 자유를 암시한다(Cheng 41). 눈의 상징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부부간에 존재하는 제국주의적 관념을 해체함으로써, 남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내재했던 모든 서구 형이상학적 관념을 해체한다. 그의 의식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비개성적 견해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결국 조이스의 민족주의는 게이브리엘로부터 시작된다.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 속물근성을 지녔지만, 게이브리엘은 애란제도를 방문함으로써 아일랜드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타라로 가는 길은 홀리헛을 거쳐야”(P 250) 한다는 조이스의 민족주의적 신념에 대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자아를 인식한 게이브리엘과 같은 태도야말로 조이스의 예술적 혁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이스가 위대한 문학 작품이 지닌 “민족주의의 강렬성”(Ellmann 505)을 강조했을 때, 그 민족주의란 조국과 유럽대륙의 특성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한 게이브리엘의 의식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기에 더블린,

아일랜드, 그리고 조이스 문학의 특수성은 보편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게이브리엘의 관념은 구조주의와 서구형이상학적 이념에서 비롯된다. 특히 서구 형이상학의 이념은 대부분의 요소들을 이항 대립 쌍으로 나누고 어느 한 쪽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지배체계를 형성하는데,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이러한 관계를 “폭력적 서열제도”라고 설명한다(41). 데리다가 구조주의와 서구 형이상학을 정의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분법적 서열체계는 해체되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게이브리엘은 처음에는 제국주의적, 속물주의적, 사대주의적 사고를 지닌 인물로 나오지만,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자신의 이러한 성격을 인식하고 해체한다. 결국 그는 대립과 지배종속이 아니라 상호 개체를 인정하는 해체주의적 사고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대주의적 경향을 버리고, 아이버즈가 지닌 국수주의적 입장도 취하지 않으며, 해체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이 조이스가 제시하고자 했던 해체주의적 관점, 즉 해체주의적 민족주의라 하겠다. 「죽은 사람들」은 『더블린사람들』의 종장이고 『초상』과 『율리시즈』의 서문이라는 것은 이 작품의 주인공 게이브리엘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스티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초월적 중심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항대립 요소의 상호 보완작용은 계속되어야 하고 주인공의 자아인식 과정도 무한히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안동대)

인용 문헌

- Benstock, Bernard. “‘The Dead’: A Cold Coming.” *Critical Essays on Joyce*. Ed. Bernard Benstock. Boston: G. K. Hall & Co., 1985. 148-62.
- Cheng, Vincent J. “Empire and Patriarchy in ‘The Dead’.” *Joyce Studies Annual* 4 (1993): 16-42.
- Daiches, David. “Dubliner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Dubliner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Peter K. Garrett. New Jersey: Prentice-Hall, 1968. 27-37.

- Derrida, Jacques. *Positions*. Trans. A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1.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Oxford: Oxford UP, 1982.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2nd ed. California: U of California P, 1982.
- Ingersoll, Earl G. "The Gender of Travel on 'The Dead'." *James Joyce Quarterly* 30 (1992): 41-50.
-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14.
- _____. *Stephen Hero*. New York: A New Direction Books, 1954.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16.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75.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Litz, A Walton. *James Joyce*. Boston: Twayne, 1966.
- Manganiello, Dominic. *Joyce's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0.
- Mason, Ellsworth, and Richard Ellmann, ed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London: Faber and Faber, 1959.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59.
- Walzl, Florence L. "Gabriel and Michael: The Conclusion of 'The Dead'."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Ed. R. Scholes and A. W. Litz. Harmondsworth: Penguin, 1979. 423-43.

Abstract

“The Dead”: Gabriel Conroy’s Politics

Sanghyo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Gabriel Conroy’s politics - imperialism, snobbery, and flunkysm - and his awakening from politics and becoming a true Joycean nationalist.

James Joyce’s Gabriel, the main character of “The Dead,” has been examined from opposite points of view: a Joycean nationalist in the affirmative and a paralysed character in the negative. But I suggest the hypothesis that both Gabriel’s politics and the theme of paralysi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ame context. David Daiches said that ‘no argument can be isolated and discussed as the theme of the story, for the story is the theme and the theme is the story.’

According to many critics, Gabriel is a dead member of a dead society: he remains rooted at the centre of paralysis. The theme of paralysis is mainly represented in Gabriel’s imperialistic politics: familial and sexual. Judging from Gabriel’s politics, his imperialism is closely related to, and sustained by, his snobbery and flunkysm.

The theme of paralysis - Gabriel’s imperialism, snobbery, and flunkysm - is reinforced by symbols, such as ‘goloshes’ symbolizing a more civilized dominant European culture, ‘whose very cultural superiority and refinement depended on the exploitation of its colonies,’ Wellington Monument symbolizing British imperial rule, and King Billy’s statue, a symbol of English domination. The imageries of light and dark are also developed within the pattern of paralysis.

Besides Gabriel’s imperialism, his sexual colonialization, and the theme of his paralysis, there are very many clues that we may consider to Gabriel’s

attitude and thoughts of snobbery or flunkysm: Gabriel's cultural and class snobbery, and his lack of Irishness.

As a result, Gabriel, experiencing lyric epiphany, becomes transformed 'from insularity and egotism to humanitarianism and love.' This recognition brings with it the discovery that he has never understood the integrity of his wife Gretta, of his home country Ireland, and his own. Finally, having discovered his deficiencies, Gabriel was able to become a true Joycean nationalist.